

## SAMC | LAW REVISION

## 1. 폐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추가

불법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추가했다. 또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추가하고, 잠정가격 확정 신고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 2.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52만 2,523톤'으로 확대

정부가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미곡류 16개 품목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기준발동물량도 41만 7,271톤에서 52만 2,523톤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올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한 것이다.

[Read More](#)

## 3. “노후車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제도 변경 내용 확인하세요”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노후자동차 교체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변경된다며, 감면대상 및 요건, 감면율 등을 1월 2일 안내했다. 아울러 감면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감면 절차·서식 등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경유차를 포함한 승용차가 감면 대상이었으나 경유차를 포함하여 승용차가 감면 대상으로 개정되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amp; TRADE TREND

## 1. 관세청,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확정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명·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을 총칭하며, 해당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된다. 특히 신고인은 품목분류,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Read More](#)

## 2.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우리는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美 재무부가 1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Read More](#)

## 3. 의회 벽 넘었지만... 갈 길 먼 '브렉시트'

영국 하원이 지난 9일 '브렉시트 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해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31일로 영국이 50여년 만에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극적 드라마와 혼돈으로 요동친 브렉시트의 역사적인 한 장은 넘어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영국-유럽연합 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을 놓고 브렉시트 국면이 또 다른 험난한 여정에 막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디지털 무역 앞세운 한중일 FTA '데이터 암호' 걸리나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의 원유'로 떠오른 만큼 각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의 난기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한다는 한중일 FTA 협상 취지와 국내 데이터 규제 수준 간의 접점을 찾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d More](#)

## 2. 한·러 서비스 및 투자 FTA 제3차 회의 개최

우리 정부와 러시아의 서비스·투자 부문 FTA 제3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분과 등 분과별 협정문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양국은 2차례 협상 및 회기 간 협의를 통해 협정문 전체 구조, 주요 구성요소, 시장개방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한·러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서비스 및 투자 FTA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 3. 한-캐나다 FTA 5주년...양국 교역 연평균 1.9% 늘어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올해로 5주년이 됐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였다. 지난 5년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 발효한 이후 한국의 대(對)캐나다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교역량 증가율 1.0%를 웃돌았다고 20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해당 내용의 범위 및 요건을 제한하여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예고하였다.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품들은 기능성 원재료 및 성분, 기능성분 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 질병 치료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Read More](#)

###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현재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를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한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이 표시 가능한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년 2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Read More](#)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전체로 확대강화 하였다. 또한,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였다.

[Read More](#)